

서부권

양식 해조류 신제품 개발 급하다

2012년 품종보호제도 시행 때 김·미역 로열티 지급해야

안동서 '조류학회 학술대회·해조류산업 선진화 포럼'

오는 2012년 해조류의 품종보호제도 시행에 앞서 해조류 종자산업의 종합적인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함께 품종개발·보존·공급을 위해 산·학·연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립수산물연구원 해조류연구센터 공용근(55) 센터장은 29·30일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안동지원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0년도 한국조류학회 학술대회 및 해조류산업 선진화포럼'에서 '미래수요에 대비한 해조류 신제품개발 및 양식기술개발'이라는 제목의 논문발표를 통해 "해조류바 이오연구센터와 지역 수산사무소·지자체 연구소·대학·기업체·어업인 등

과의 연계를 통해 산·학·연 공동으로 해조류 신제품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와 포럼에는 한국 조류학회(회장 김창훈) 회원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남도·안동군 관계자·어업인·해조류 가공업체 등 400여명이 참석해 최신 연구성과를 담은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할 계획이다. 해조류 가운데 김 20%, 미역 15%가 일본품종이 차지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지 못하면 22억~38억원의 로열티 지급이 우려된다"며 "수산식품 품종보호제도 시행에 대비해 국제 식품품종보호

동맹(UPOV)과 해외 선진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국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조류 분야의 경우 해조류바 이오연구센터 16명(연구인력 7명)이 육종과 유전자원 관리 등 기존 업무 외에 별도 증원없이 품종보호제도 준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농업분야는 국립종자원 172명, 산림분야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40명이 품종보호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78년부터 해조류 품종보호제도를 시행해 선발·교잡·돌연변이 육종을 통해 다수의 김과 미역 신제품을 개발했다. 일본 수산청은 2012년 우리나라의 해조류 품종보호제도 시행에 대비해 대학과 현(縣)

수산기술센터에 적극적인 품종등록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중국역시 1999년 UPOV에 가입하고 다시마 실용품종을 다수 육종하고 최근 신제품 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국가별로 해조류 신제품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공용근 센터장은 "대학과 연구소, 민간분야의 해조류 신제품 개발은 개발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데다 투자비용과, 불확실한 결과, 육종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연구성과가 부진한 실정"이라며 "해조류 양식산업 역시 단순 식용에서 벗어나 기능성물질을 추출해 산업화하는 등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unjung@



울돌목 거북배 인기 짱

해남 우수영과 진도 벽파진간을 운행하는 '울돌목 거북배'가 학생들의 역사체험 학습을 위한 산교육의 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달에 5000여명의 학생들이 거북배를 승선했으며 다음달에도 3000여명이 추가로 찾을 예정이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목포 북항 수산물 유통항 거듭난다

공정률 45% 복합센터 내년도 완공... 인근에 푸드타운도 조성

서해안 고속도로의 종착점인 목포 북항이 서남해권의 수산물 전문 유통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28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공식을 가진 '해양수산물복합센터' <조감도>가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목포시는 이들 시설이 들어서면 서해안 고속도로의 종착점인 북항이 서남해권 수산물의 집산지로 맞닿아 불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해 다기능 항만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물복합센터와 수산물 전문음식단지 조성사업

지시간, 다목적 강당,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또 전남개발공사가 2012년 상반기까지 해양수산물복합센터 인근에 수산물 전문 음식단지인 'Sea-Food Town'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북항 활성화 뿐만 아니라 목포경제의 효과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훈기자 lyc@

명예경찰 소년단

완도경찰 30명 위촉

완도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2010년도 제 11기 명예경찰 소년단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는 노병현 경찰서장을 비롯해 장재익 안동교육장과 장학사·각 과장·교사·소년 명예경찰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소년단 명예경찰들은 완도 중앙초등학교·신지초등학교 등 3개교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30명이 선발됐다.

노병현 안동경찰서장은 "명예경찰 소년단 활동이 초등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 각급·면 초등학교로 확대해 경찰기초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외로운 낙도주민 일손 돕고 말동무 되고

다도해국립공원 서부사무소 교감 프로그램 호응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황정걸)가 육지와 멀리 떨어져 접근이 어려운 관내 24개 낙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감(交感) 프로그램(Tel-care)'을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다도해 서부사무소는 최근 진도군 조도지역의 233가구를 방문해 생필품과 간식 제공을 비롯해 ▲마늘까지 등 일손돕기 ▲어깨 주물러드리기 ▲말동무 되기 등을 실시했다. '교감 프로그램'은 먼저 직원별로 전담마을을 지정해 사전조사할

태 등을 토대로 매일 안부 전화로 불려요·요구사항을 파악한다. 이어 직원들은 분기별로 마을을 방문해 ▲애로사항 해소 ▲필요품 풀 지원 ▲일손돕기 등을 실시하고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문제점을 보완하게 된다.

주민 김모(86·진도군 조도면) 할머니는 "수년에 80대 노인 3명만이 생활을 하는 곳에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주니 손주처럼 반갑다"고 말했다.

황정걸 서부사무소장은 "앞으로 직원들이 낙도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부를 전하고 방문해



지역주민들이 쉽게 국립공원을 이해하고 가족처럼 친근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민기자 wncho@

신안 압해도서 명품분재 전시회

내달 1~23일 송백·잠목류 등 100여점

신안군은 다음달 1일부터 23일까지 압해면 송공산 기슭에 자리 잡은 분재공원에서 봄맞이 명품분재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송백류·잠목류 등 100여 점의 명품 분재가 전시된다.

지난해 5월 개장한 16.5ha의 분재공원은 분재원·야생화원·장미원·생태연못·산림욕장 등 다양한 주제로 꾸며져 있다.

또 영연이 깃든 자연의 신비로 평가받는 아프리카 석조유적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소나 조각'도 야외에 상설 전시하고 있다.

신안군은 '천사섬 분재공원'을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계절별·테마별 전시회와 함께 수석전시관 건립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민기자 wncho@

함평 균유산 차나무는 산림 유전자원 보물

산림과학원 조사, DNA 다양성 전국서 가장 우수

함평군 신광면 균유산(해발 403m)에 군락을 이룬 야생 차나무가 전국에서 DNA 다양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함평군에 따르면 국립산림과학원의 야생 차나무 유전자원 조사와 보존기초에 대한 과학적 조사결과 함평군에 대한 인근에 자생하는 차나무의 유전 변이 값은 0.442(전국 평균 0.343)로 전국 38개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함평지역의 차나무가 산림 유전자원으로서의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육종시 우수 개체를 선발할 수 있고, 국내 품종 선발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함평은 예로부터 녹차를 즐겨가 지역으로 세종실록지리지에 함평 작살차는 죽순·비자·여유가족 등과 함께 중요한 진상품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함평지역의 차나무 면적은 총 22ha로 함평 전역에 골고루 분포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귀농자들도 녹차와 황차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국제 식품품종보호동맹(UPOV) 규약에 따른 품종 사용료와 재산권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해 야생 차나무 수집을 통해 우수한 개체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남성성기능강화제

본 성기능 강화제는 허브,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같은 20여 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지방산강화작용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노음이 된다는 임상실험결과가 있고 단백질 함량을 저감하는 힘을 돕고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류카나프린산을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하므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화분의 효능이란? 생식세포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식기 기인 영양분이 집약된 것입니다. 화분속에는 22종의 아마노산, 27종의 무기질, 18가지의 비타민 등 약 185종의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체내에서 화분이 이루어져 체액과 부디 생화학 주어미인 하는 필수 아마노산을 허브순 단백질이 모두 함유하고 있는 풍부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하일 복용으로 1~5일까지 효과를 볼 수 있음

실명 없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느껴보시고 확인하세요.

▶혈관에 밝기는 뇌나 자존감이 없거나 췌장이나 있는분들은 생화학 영양제 효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혈관에 밝기 안에는 알카리성이 있으면 분들은 1일 1정을 3~7일 정도 연속으로 복용하시면 혈관이 맑아지고 혈관벽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7770-8138
농협 302-0136-6325-61(권옥연)

아내가 개발한 큰놈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 폭발이다. 그동안 이것저것 기대했다가 실망한 커피에 큰놈을 보기도 후사 사용이 편리하고 간편하고 고당 없이 인산반포 하여 사용해 봤더니 신기하게 맛과 향이 좋아질 수가 있었다. 사용후 기분 좋게 느껴지는 기분 좋은 효과를 보았다. *기분 좋게 느껴지는 기분 좋은 효과를 보았다. *기분 좋게 느껴지는 기분 좋은 효과를 보았다.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식품의약품관리처 40대부터 80대까지 당당해 지므로 복용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www.한나정.kr (G-FLOW)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식품의약품관리처 40대부터 80대까지 당당해 지므로 복용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www.한나정.kr (G-FLOW)

다이아몬드 大物

현대 남성들의 최대 고민해결! 증언이 사들거나 강직도가 왜해지고 비무 해본...분들의 "기"가 원활해지도록 도움 드리며 본인 스스로도 감각 높일만한 따그마인식의 다이아몬드 링은 상황에 따라 편리하도록 10년째 조질이 가능합니다. (내란원 상담의 고급 사은품 증정) www.한나정.kr
상담전화 301-0036-8883-71 (주)로보 한나정
1577-4101 010-8952-4114
1588-4102 010-8558-4114

지역	소지지	면적(㎡)	감평가	최저가
서울	관악구	281/109	8천7백	6천1백
	강남구	389/87	4천4백	3천1백
	관악구	387/120	3천7백8십	1천6백8십
	관악구	380/155	1억3천2백	9천2백4십
경기	안양시	681/89	7백2백	5천
	안양시	813/852	9천	8천8백
	안양시	646/127	8천4백	5천2백
	안양시	75/70	4천2백	3천2백
충청	대전시	211/118	1억5천2백	1억1백
	대전시	330/235	2억9천2백	1억9천8백
	대전시	555/108	4천8백2십	3천3백8십
	대전시	211/118	1억5천2백	1억1백
전남	목포시	221/540	2억7천6백	1억9천3백
	목포시	241/221	5억4천8백	3억8천3백
	목포시	212/578	2억1천5백	1억2백
	목포시	201/322	2억4천1백	1억8천8백